

21. 예언을 주신 목적

2012. 5. 20.

금빛 새벽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을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중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요13:19, 14:2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 목사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인용한 성경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려는 것이지요. (예) 예언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답: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대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예언, 즉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일이 이를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언을 연구하여 그 뜻을 아무리 잘 풀이하고 적중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언 연구는 목적을 잃어버린 연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주신 목적을 반드시 명심하고 목적에 맞도록 연구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이 곧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의 우상 형상으로 예언한 국가의 장래 곧 세상의 장래에 대한 예언도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는데 있다는 말씀이군요?

답: 당연하지요. 이미 지난 시간에 연구한대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 뜨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2장의 주제는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그런데 성경 예언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예언입니다.

3.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예언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언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인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 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예언은 우리가 열 두 번째 강론을 할 때에 노아가 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한 사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구주가 오실 사람 계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왜 함이 잘못했는데,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을 불러 종의 종이 된다고 저주했는지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야기를 넘기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 대하여 한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예언이기 보다는 그 예언의 뜻을 알아서 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권하고는 사랑의 경고성 예언이었던 것 이라고 보입니다. 함에게 있는 고약한 성질의 유전이 이미 그 아들 가나안에게 나타난 것을 노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지요. 그 성질이 그대로 유전되면 넷물이 강물이 되듯이 마침내 종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나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예언한 것은 그 성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고 당시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요나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류의 예언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사실 다니엘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비극도 이미 꿈을 통하여 예언해 주었고 다니엘이 분명히 해석하여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한 사랑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과는 달리 함의 후손들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예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대로 되었지요.

4.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언에 그런 의미가 있군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답: 그것은 구주와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과 사건들은 그 초점이 구주와 구원 사업에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예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26: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구주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지요. “[눅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입니다. 다니엘 2장에 돌로 표상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입니다. 중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 로마 분열된 나라들의 예언은 혹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돌 나라로 표상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 진행의 경로가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적의 끝에 역사적 사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말씀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가 끝났지요.

5.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사실만 말씀하지 않고 역사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답: 세상 사람들은 증명되어야 확신하는 성질이 있지요. 아주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면 참 잘 믿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과학적 사실이 아닌데도 과학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과학이라는 말에는 요술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은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것은 전혀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그것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화론 요술에 걸려든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기 전까지는 가설적 이론일 뿐이지요. 사실 빅뱅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설 이상이 아닙니다. 결코 증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일상적인 과학적 사실들은 대부분 실험으로 증명되었고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이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일 현상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그 주기가 천년이 걸린다고 하면 당대에 실험할 수 없지요. 그러나 대부분 실험으로 증명되는 과학적 사실들은 동일 현상이 짧은 기간에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면 그 이유를 밝혀내지요.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을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의식이나 문화적 의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무의식적 의식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실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을 실험재료로 하고 역사를 실험관으로 해서 예언을 역사에 대입시켜보아라. 그것이 그래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것이 바벨론으로부터 분열된 나라까지 세상의 쟁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예언된 역사적 사건의 성취를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6.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가 다음에 로마가 그리고 로마가 분열된 나라들이 되고 그 나라들이 서로 통일되는 일이 없는 사실이 예언대로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거든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에 건설되는 것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했다는 말씀이군요.

답: 옳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것들이 이미 다 역사에서 그래도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이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지요. 그렇게 통일 유럽을 이루려고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면 그 다음 둘 나라가 건설되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분열

된 나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가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친 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돌이 바로 우상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 세계에 태산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가 이 지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늘 예루살렘에서 1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제자장과 심판장으로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이 다 이 땅으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새 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합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이 된 지구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됩니다. 이 사실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해할 여지가 없는데 기독교 역사는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시간이 되면 자세히 나누어야 할 진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대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1000년을 이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입니다.

7.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에서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답: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 나라입니다. 물론 돌은 상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한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 활자와 돌 석자를 사용하여 활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뵈전2:4,5을 읽으시겠습니까?

[뵈전2:4,5]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산 돌이 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지요. 마태16:16~18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고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지만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를 알았지요. 살아계신 반석이신 예수님의 성질과 동일한 성질이 되라는 것입니다. 반석도 돌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이 산 돌이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산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돌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돌로 표상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니엘 2장이 나타내는 초점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성립 곧 역사적으로 성립된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 그것은 이 지구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연대는 영원하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질을 얻은 자들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가르쳐주려는 목적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분열된 나라들의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실험용입니다.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믿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 땅에 건설된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역사적 사건으로 실험하고 증명하여 믿게 하신 것이니 예언과 그 성취는 참으로 과학적 사실입니다.

8. 목사님, 확실하네요. 하나님은 참으로 면밀 주도하십니다. 인간의 성질을 잘 알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조처를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인류 자체를 위하여 비극입니다. 이 예언과 해석은 너무나 분명하네요.

답: 그러니까 기본 같은 역사가도 이것을 2500년간의 세계사를 가장 적은 글자로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찬탄을 했지요. 애청자들께서도 확신하시고 지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우상 형상을 통하여 세계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한 이 표상에는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 외에도 역사철학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우상은 사람형상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주장합니다. 이 우상은 세상 역사인데 그 역사의 머리가 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를 관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머리 곧 정신은 황금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오랜 옛날부터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상은 머리부터 발까지 점점 가치가 낮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는 진행될수록 인간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도덕적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이 진흙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니 그렇지요. 그리고 이 우상은 머리 쪽이 엄청 무겁고 발쪽은 진흙입니다. 산 것들은 괜찮아요. 사람도 머리 쪽이 무겁지만 서서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지요. 그러나 이런 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이 가볍고 위가 무거우면 쓰러지지요.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역사가 불안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불안한 역사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없는 역사이지요. 지금도 불안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형상인데 세상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역사의 진행과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역사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세상을 끝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산 돌이 되기를 간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언에 꼭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세상은 바벨론 사상이 지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바벨론 사상은 우상숭배 사상입니다. 온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금은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그 이면에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 자체라는 것이지요. 루시퍼가 인류 시조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사람을 신으로 여기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인간들의 신이 되니까 금은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 인간의 욕망과 사상을 입혀서 그것을 경배하는데 실은 인간 경배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예언하신 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예언하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기별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답: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는 믿음을 파선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딤후1:18,19을 한 번 읽어보시지요.

[딤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고 믿음은 파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도대로 예언의 지도를 받아서 파선하지 않는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산 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지요?

10. 예, 그래야 하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우리와 함께 이런 산 돌의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분명한 예언과 그 성취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 돌이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우리도 산 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건국될 그 돌 라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